



## 교회소식 & 이웃소식

- 함께여는교회 예배 시간  
주일 오전 11시 30분
- 함께 가는 공동체  
뉴스앤조이, 교회개혁실천연대,  
성서한국, 하나누리, 희년함께,  
개척자들, 촛불 교회, 좋은 의자,  
그리스 이슬람 난민 선교
- 교회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36가길 97(B1층)
- 교회 전화번호  
02) 743-4113
- 교회 홈페이지  
[www.opentogether.org](http://www.opentogether.org)
- 교회 은행계좌  
국민은행 089501-04-184175

### 섬기는 분들

교인총회의장	홍사성
운영위원장	표승범
예배팀장	-
사회선교팀장	노희창
교육팀장	-
생활팀장	김현숙
가족팀장	안용희
재정팀장	방태홍
나누미대표	박상현
청년회장	한의진
장로회	김대준 김동훈 송 건 정모세
교육전도사	김 덕

1. 한반도의 평화, 경제정의,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함께여는교회입니다.
2.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방역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선의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방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시스템이 열악한 국가들에 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3. 오늘 주일학교 예배는 오후 2시에 줌예배로 드립니다. (김덕)
4. 8월 14일에는 장로회가 있습니다 (김대준)
5. 교회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 8월의 영화는 '나의 집은 어디인가'(넷플릭스)입니다. (김동훈)
7. 촛불교회는 8월 한 달 간 휴지기를 갖습니다. (노희창)
8. 함께여는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가족팀에게 말씀하시면 소정의 안내와 교육을 통해 함께여는교회 식구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용희)

# 함께여는교회

제14권 29호  
2022년 8월 7일

## 함께 여는 이야기

### 전국 장애인 연대 활동가 이규식 이야기(마지막회)

비장애인은 지하철이고 버스고 다 타고 다니는데 왜 장애인은 못타고 다녀야 되나. 20년 동안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짓게끔 대한민국이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 내가 고의로 지하철을 막고 버스를 막고 점거한 게 아닌데 나는 단지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보장하라는 게 죽을 죄를 짓고 감옥에 보내질 일인가. 그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 재판장에게 물겠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런일로 감옥에 갈일인가요?

20년동안 그렇게 요구했고, 공문도 엄청나게 보내서 힘들게 면담하면 다 알겠다고 오케이 해서 기다렸는데 우리 얘기를 들어주었던 공무원들이 가야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빠져 나오나 안 나오나 감옥에 가라면 가게 될것인데 끝까지 싸우러 갈 겁니다. 그렇다고 아~네. 하고 쏙 빠져 나올 순 없지 않습니까. 빠져나온다고 해도 다시 싸울 건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싸우는 것 말고 없습니다.

왜 장애가 있는 아이를 죽여도 부모에게 죄를 묻지 않으면서 우리는 누굴 죽인 것도 아닌데 우리한테는 죄를 묻는지. 당연한 권리마저 목사발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싸울라면 확실하게 싸우지 괜히 집적거리지 않고 확실하게 싸울겁니다.

그것이 제 자존심입니다.

이규식 활동가 SNS에서

## 함께 여는 예배

오전 11시 30분	사 회: 노 희 창
침 목 의 기 도	다 함 께
신 앙 고 백	다 함 께
주 일 학 교 말 씀	사 회 자
주 일 학 교 말 씀 나 눔	김 덕
찬 양 의 시 간	사 회 자
공 동 기 도	사 회 자
함께 여는 말 씀	사 회 자
말 씀 나 눔	김 동 훈
환 영 / 알 리 는 말 씀	담 당 자
송 영 과 축 도	다 함 께

### 예배위원

	8월 14일	8월 21일	8월 28일	9월 4일
예배인도	김현숙	안용희	박상현	홍사성
대표기도	사회자	사회자	사회자	사회자
말씀나눔	정모세	김동훈	표승범	김동훈(성찬식)

### 함께여는교회 신앙고백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생명과 평화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여는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임을 믿으며,  
 이웃과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치유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섬김과 사랑의 도를 배우고 실천케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적용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연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긴 계시임을 믿으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함께여는교회 축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민6:24~26)